

# 장개석의 여러 정치적 선택들에 대한 감상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의 갈등

20200422 이수빈

정치적 결정이든, 개개인 인생에서의 결정이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장개석은 여러 번의 갈등 속에서 대부분 이상보다는 현실을 택했다. 다시 말해, 선택의 순간마다 장개석은 중국사회의 여론을 붙잡기보다 당내의 지지와 공산군의 섬멸에 치중했다. 만약 내가 장개석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음에는 장개석과 같이 현실론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위치가 안정되고 확실히 권력을 잡았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이상을 좇으면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갔을 것이다.

1926년부터 약 2년 간 장개석은 북벌을 감행했다. 당연히 제1차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국민당 당내 분열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결국 장개석은 국민당의 중국 통일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었다. 즉, 중국을 통일함과 동시에 군벌 세력의 타협까지 얻었다. 물론 중국 통일 이후에 군벌들은 여전히 힘이 있었고 이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장개석은 중국사회가 원하던 반군벌을 실현하고 중국을 통일하는 두 가지의 큰 성취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장개석은 당시 한 당의 지도자로서 중대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반장전쟁을 벌이고 주석으로 취임하며 중국의 군사와 재정을 모두 장악하였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체제가 안정되고 지배력을 강화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요소가 희생되어 민심을 잡지 못해 오히려 국민당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1)</sup> 하지만 이러한 장개석의 선택은 중국을 통일한 후 국민들, 그리고 군벌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뒤야 했던 강수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당의, 혹은 중국의 최고 실권자로서의 장개석의 위치가 안정되기까지는 현실론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이다.

장개석과의 생각이 어긋나는 것은 그 이후이다. 장개석은 계속해서 현실론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물론 장개석의 정책들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했겠지만, 주석으로 취임까지 하며 권력을 굳건히 했던 장개석으로서는 이상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자의 위치가 확립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실론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최우선시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화되면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력이 안정된 이후에 이상론을 선택하면, 안정적인 권력을 토대로 현실적 문제들의 해결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민들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중국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설립했을 때 장개석은 공산당 섬멸을 우선시하고 만주국 문제는 국제연맹에 제소하였다. 그로 인해 항일을 중시하던 중국사회는 국민당에 등을 돌렸으며 여론이 공산당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다.

---

1) 참고 : 수강생용ppt(22) page 9